

제주의 중심가치는 무엇인가?

- 제주도 큰굿 및 신화의 보존과 창조적인 문화산업과의 접맥과 변용을 기대하며

발표 : 이수자(李秀子)¹⁾

<차례>

1. 제주의 화두 : 탐라국의 실제 규명
2. 삼성신화 형성에 미친 제주 큰굿의 역할
3. 탐라인의 생활에 미친 무속의 영향
4. 제주의 중심가치는 무엇인가?

1. 제주의 화두 : 탐라왕국의 실제 규명

‘제주의 중심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말을 할 때 중요한 문제는 왜 이것이 필요하며, 중심가치의 대상이나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는 가이다. 인간은 나름대로 가치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모든 사고나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던 나쁘던 나름대로 한번 어떤 가치기준을 정해보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인 것 같다.²⁾ 이런 면에서 제주의 중심가치를 생각해 보는 것은 제주의 행동방향이나 목표를 정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매우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면 제주의 중심가치의 대상이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그 입장과 생각을 달리 할 것이다. 우연한 기회에 제주도 큰굿, 그 중에서도 특히 무속신화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도 무속을 연구하게 된 본 발표자의 입장에서는 제주의 중심가치는 제주도 큰굿과 같은 무속 내지는 여기에서 구송되는 중요한 무속신화와 같은 것들의 보존 및 이들의 창조적인 문화산업에의 접맥과 변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주도 큰굿과 여기에서 구송되고 있는 여러 신화들은 매우 고품의 문화물로서 우리 민족문화의 뿌리이며, 나아가서는 제주의 수많은 문화를 만들어낸 모태로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 제주에 남아 있는 이들 이야기들은 문화콘텐츠적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도의 언론계나 학계의 동향을 보면, ‘탐라왕국’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³⁾ 그래서 현재 제주도의 화두는 바야흐로 ‘탐라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이것은 제주에서는 중심가치를 탐라왕국에 두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 현재나 미래에 있어 지역적 독자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주도를 하나의 독자적인 문화권으로 구축하여 제주를 하나의 공동체로 결집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작업은 일면 매우 바람직하고 또한 가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필자가 제주의 중심가치를 제주도 무속 및 여기에서 구송되고 있는 신화들을 강조하는

1)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중앙대학교 비교민속학과 겸임교수, (재)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 이런 면에서 종교는 우리들 인간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종교야말로 그 내용 속에 어떤 가치를 제시하는 수많은 교리를 담고 있어, 우리에게 강제로 삶의 방향을 강요하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3) 이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JIBS)에서는 최근 “잃어버린 해상왕국, 탐라”를 제작·방영한 바가 있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와 2012 탐라대진추진위원회에서는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바다로 열린 세계, 제주의 해양문화”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2012.11.14-15). 여기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의 여러 학자들이 탐라왕국의 실제 규명과 탐라왕국과 해양문화, 혹은 제주 해양문화의 특징 및 주변 지역과의 교류양상 등을 발표하였다.

것은 우선은 이것이 우리 민족문화사에 있어 매우 고행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은 제주문화를 형성한 모태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것은 탐라문화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근거도 있다. 제주도 큰굿이 고행의 문화물이라는 것은 이미 수차 지면을 통해 발표한 바 있지만⁴⁾, 이것이 제주문화를 형성한 동인이며 모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한바 없기에, 이번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언급하면서 제주도 큰굿의 중요성을 강조해 보고자 한다. 제주문화는 통시적으로나 공시적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어서 큰굿이 미친 영향을 논하고자 할 때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여 논해 볼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의 화두가 ‘탐라왕국’인 것 같아, 본 발표에서도 탐라국의 실체를 밝히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대상을 여기에 맞춰보고자 한다. ‘삼성신화’는 많은 연구에 의해 이제는 탐라의 개국신화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이 신화를 중심으로 이러한 신화의 형성에 제주도 큰굿이 나름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어서는 탐라인이 살았던 삶의 한 양상을 중심으로 여기에 미친 제주 큰굿의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작업은 제주문화에 있어 제주 큰굿의 위상과 의미를 드러내어, 이들이 제주의 중심가치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 줄 것이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탐라국의 개국신화라 할 수 있는 삼성신화의 내용 및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고, 이어서는 삼성신화의 형성에 미친 제주도 큰굿의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탐라국 생활의 한 단면을 중심으로 역시 이들이 큰굿 내용과 얼마나 밀접한 상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언급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는 제주의 중심가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다.

2. 삼성신화 형성에 미친 제주 큰굿의 역할

삼성신화(三姓神話)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 이미 탐라국의 개국신화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워낙 유명한 신화이기에 제주에서는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논지의 편의를 위해 여기에서 간략하게 그 내용 및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이어서는 이러한 신화의 형성에 미친 큰굿의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삼성신화에 있어 삼성은 고씨, 양씨, 부씨를 일컫는다. 자료에 따라서는 양씨, 고씨, 부씨의 순서로 나타나는 자료도 있고, 고씨, 양씨, 부씨로 나타나는 자료도 있으며, 양씨에 대해서는 원래 양(良)씨였는데 후일 양(梁)씨가 되었다고도 한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논지상의 편의를 위해 삼성을 고씨, 양씨, 부씨의 순서로 언급하며 논지를 전개하기로 한다.

1) 삼성신화의 내용

삼성신화는 정이오가 지은 <星州高氏傳>(태종 16년, 1416), <고려사 지리지>(단종2년, 1454), <신증동국여지승람>(중종25년, 1530), 이원진의 <탐라지>(효종4년, 1653), <瀛洲志>를 비롯 그 외의 수많은 문헌에 실려 있지만, <고려사>의 내용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4)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이수자, 「제주도 무속의 창세신화로 본 민족문화의 정체성」,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2008, 331-404쪽.

탐라현은 전라도 남쪽 바다에 있다.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태초에 사람이 없더니 한라산 북녘 기슭의 모흥혈(毛興穴)에서 양을나(良乙那)·고을나(高乙那)·부을나(夫乙那) 세 신인(三神人)이 솟아났다. 세 신인은 황량한 들판에서 사냥을 해서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았다. 하루는 자줏빛 흙으로 봉해진 나무함이 동쪽 바닷가에 떠밀려 오는 것을 보고 나아가 이를 열었더니 돌함과 사자(使者)가 있었다. 돌함을 열자 푸른 옷을 입은 세 처녀와 송아지, 망아지, 오곡의 씨가 있었다. 사자는 “나는 일본국 사자인데 우리 임금님이 세 딸을 낳고 이르시되 서쪽 바다에 있는 산에 신자(神子) 셋이 탄생(誕降)하여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다 하시며 세 따님을 보내셨으니 배필을 삼고 대업을 이루소서”라고 말한 뒤 구름을 타고 떠났다. 세 사람은 나이 순 대로 나누어 장가들고 물이 좋고 기름진 곳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각자 거처할 곳을 정했다. 양을나(良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제일도(第一都), 고을나가 거처하는 곳을 제이도, 부을나가 거처하는 곳을 제삼도라 했다. 비로소 오곡의 씨를 뿌리고 소와 말을 기르니 날로 살림이 풍부해졌다.

2) 연구결과로 본 삼성신화의 특징

삼성신화는 육지 쪽의 건국신화와 달리 신들의 탄생에 종지용출(從地嚮出), 또는 지중용출(地中湧出) 내용을 담고 있어 육지 쪽의 신화와 구별된다. 까닭에 제주도를 상징하는 신화로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신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는데, 대표적으로는 장주근,⁵⁾ 양중해,⁶⁾ 현용준⁷⁾ 교수 등이 있고, 현재도 많은 소장 학자들이 이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⁸⁾ 삼성신화에 대한 대표적인 업적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삼성신화의 종합적 검토』(탐라문화 14집, 1994)라 할만하다. 여기에는 삼성신화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성과가 집약되어 있는데, 이 신화의 형성과 문헌정착 과정(장주근), 고고학적 접근(이청규), 신화학적 고찰(허남춘), 을나 신화의 문화전통과 탈전통(전경수), 연구성과와 과제(허준), 삼성신화 수록 문헌, 삼성신화 관계 구전자료, 삼성신화 논저목록 등이 실려 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검토하면 삼성신화에 대한 연구업적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현용준 교수는 삼성신화의 여러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세세한 화소까지를 고려하여 이분을 나누면 <고려사>계와 <영주>계, 그리고 절충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들 본에 화소의 차이가 생긴 것은 구전이설의 기록차에 연유했을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삼성신화와 제주도의 설화를 비교해 보면 무속의 당신본풀이와 유사한 것이 많고, 삼성신화는 원래 삼성씨족의 조상본풀이이며, 이 씨족이 숭앙하던 당본풀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삼성신화에 있어 중요한 화소라 할 수 있는 지중용출

5) 장주근, 「삼성신화 해석의 한 시도」, 『국어국문학 22』, 국어국문학회, 65-70쪽 참조.

6) 양중해, 「삼성신화와 혼인지」, 『국문학보』, 3.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1970, 49-73쪽 참조.

7)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 2, 1983, 45-92쪽. 이 자료는 다시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180-226쪽에 실려 있다.

8) 권태효, 건국신화와 당신신화의 상관성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1990.

고영석, 삼성신화의 의례적 성격과 교육적 의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김현선, 제주도 당본풀이의 계보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비교민속학 29, 2005.

정진희, 조선초 제주 삼성신화의 문자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0, 2006.

김일우, 조선시대 이전 탐라국 중심 마을의 형성과 변천-제주목 관아지 일대를 중심으로, 한국사 진지리학회지 21, 2011.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보고사, 2011 등이 있다.

(地中湧出) 요소와 상주표착(箱舟漂着) 내용이 주변의 오끼나와·대만·남중국·동남아 등지의 신화에 두루 나타나는 것을 통해 삼성신화는 이들 남방계 신화요소가 흘러 들어와 제주도에 서 결합 융해되고 새로운 제주적인 신화로 창출된 것이라 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삼성신화는 그 내용이 제주도의 여러 당본풀이와 상호밀접한 연관이 있어 원래는 무가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무가가 어느 때 여러 문헌에 정착하게 되었고, 일부 내용은 특정 지역과 결부되어 전설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신화에 지중용출과 상주표착 내용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 신화를 남방계 신화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⁹⁾ 삼성신화에 나타나는 이러한 요소들은 남북방적인 요소를 수용했다기 보다는 제주도 큰곳에서 불리고 있는 무가자료들, 특히 그 중에서도 특히 일반신본풀이에 나오는 중요한 화소들을 수용하여 형성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삼성신화 형성에 미친 큰곳의 영향

여기서는 (1)큰곳의 구조와 관련하여, (2)삼성신화를 이루고 있는 주요 화소를 중심으로, (3)삼성신화에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큰곳과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큰곳의 구조적 특징을 통해서 본 삼성신화의 생성배경

제주도에는 삼성신화를 포함하여 수많은 분향본풀이와 조상본풀이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어떻게 하여 생겨난 것일까? 이것은 바로 제주도에 행해지고 있는 큰곳과 같은 제의 속에 분향신 및 조상신에 대한 제의가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큰곳과 같은 제의 속에 이러한 곳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심방은 큰곳을 하면서 이와 같은 거리를 할 때 제의를 의뢰한 집단에 맞는 분향본풀이 및 조상본풀이를 창조해서 구송해야 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수많은 분향본풀이 및 조상본풀이 등이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삼성신화도 이와 같아서, 이 신화는 고씨·양씨·부씨 등 삼성이 의뢰한 곳, 혹은 이들 삼성이 중심이 되었던 곳에서 이들의 조상신을 제의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화는 흔히 주인공의 [탄생담-성장담-혼인담-공업담-신으로의 좌정] 등으로 이루어지는 원칙이 있어, 이 신화도 이러한 구조에 맞추어 창작되었다. 그런데 조상본풀이의 특징은 살아있었던 조상에 관한 신화이기 때문에 내용에 주인공들이 겪었던 경험이나 체험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이들을 아주 신비롭고 신성한 존재로 형상화시켜야 한다. 삼성신화에서 주인공들이 신인(神人)으로 표현되거나 종지용출했다고 되어 있는 것도 모두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서 참고로 제주도 큰곳의 전체 구조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의 큰곳은 현재는 31개 전후의 곳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곳을 이루는 원리, 즉 큰곳에서 중시하는 신들의 위계질서를 중시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신들의 본풀이, 즉 신화를 대입하여 구조를 재구성해 보면, 이러한 큰곳은 원래 12개의 곳거리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여기에서 이러한 12개의 곳거리 내용을 소개해 보면 다

9) 앞서와 같은 연구 결과, 여러 사전에서 삼성신화는 한국의 건국신화에 천강(天降)·난생(卵生) 등의 화소(話素)가 흔히 보이는 것과는 달리, 시조가 땅속에서 솟아나오고 상자 모양의 배를 타고 왔다는 등의 남방신화적 요소가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다음 브리टे니커 사전 자료 참조)

10)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곳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음과 같다.

[1]초감제: 창세신화인 [배포도엮침]을 구송하면서 큰곳에서 제의되는 모든 신들을 다함께 제청에 불러 모시는 종합적인 신맞이제 : 배포도엮침을 구송하면서 우주창조에 관여했던 모든 신들의 업적을 찬양하고 기린다.

[2]불도제: 인간을 탄생시키고 양육하는 불도신인 생불신과 아기질병신 및 마마신 등에 대한 제의 : 신화 [생불할망본풀이] 및 [마누라본풀이] 구송

[3]초공제: 무법을 창조한 무조신(巫祖神)들인 초공신에 대한 제의 : 신화 [초공본풀이] 구송

[4]이공제: 인간의 생명을 조정할 수 있는 꽃들이 피어 있는 ‘서천꽃밭’에서 ‘생명꽃’을 관장하는 이공신에 관한 제의 : 신화 [이공본풀이] 구송

[5]삼공제: 인간 한 평생의 행·불행과 운명을 담당하는 전상신인 삼공신에 대한 제의 : 신화 [삼공본풀이] 구송

[6]시왕제: 저승에 있는 15시왕 및 죽은 인간을 저승까지 데리고 가는 신인 저승차사 강림신에 대한 제의 : 신화 [방광침] 및 [강림차사본풀이] 구송

[7]명감제: 인간의 죽을 액을 막는 법을 마련해 준 장수신(長壽神)인 멩감신에 대한 제의 : 신화 [멩감본풀이(사만이본풀이)] 구송

[8]세경제: 농경기원신 및 목축신인 세경신에 대한 제의 : 신화 [세경본풀이] 구송

[9]칠성제: 풍농신인 칠성신(뽕)에 대한 제의 : 신화 [칠성본풀이] 구송

[10]성주제: 집안의 부엌, 측간, 오방위, 대문, 뒷문 등 집안의 각 곳을 지켜주는 성주신에 대한 제의 : 신화 [문전본풀이] 구송

[11]분향제: 마을 수호신인 분향신에 대한 제의 : 신화 [분향본풀이] 구송

[12]조상제: 한 집단의 수호신인 조상신에 대한 제의 : 신화 [(일월)조상본풀이] 구송

그런데 이러한 열두거리 제의는 [1]은 우주 창조 및 인간세상의 문화가 창생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창조해 준 신들의 공업을 기리는 것이고, [2-7]은 인간삶의 존재론적 차원인 생사에 관한 관심을 중심으로 산육신·생명꽃밭 꽃감관·전상신·저승관장신·장수신(방액신) 등의 신들에 대한 제의를 했던 것이며, [8-9]는 먹을 것(食)에 대한 관심으로 농경신 및 목축신, 풍농신에 대한 제의를 했던 것이며, [10-11]은 주거공간에 대한 관심으로 성주신 및 마을수호신에 대한 제의를, 그리고 [12]는 집단이나 혈통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조상신을 제의하는 것으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큰곳에서는 마지막에 분향신, 그리고 조상신을 제의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큰곳을 할 때 이를 행하는 집단을 중심으로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수호신인 분향신과 자신들의 조상신을 제의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기에 이러한 곳은 어떤 집단에 의해서, 어디에서 행해지던지 그 신화 내용만 바꾸어 부르면 되는 것이어서 그 구조가 매우 탄력적이며 융통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까닭에 큰곳과 같은 제의를 하자면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분향본풀이와 조상본풀이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 바로 삼성신화와 같은 것이다. 삼성신화는 현재 기록에만 전하고 있어 문헌신화 범주 속에 들어있지만, 이렇게 보면 삼성신화는 원래 무가로서, 무속신화였던 것이 분명하다.

삼성신화는 이상과 같이 큰곳과 같은 제의 속에서 조상신을 제의하는 거리에서 창조된 신

화라 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신화의 주인공인 고·양·부 삼 신인이 탐라국을 건국한 건국주라면, 이와 같은 신화는 국가적인 제전에서 창조·구송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신화의 내용은 후일 다른 지역의 본향본풀이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2) 삼성신화의 주요 화소를 중심으로 본 큰굿의 영향

이상과 같이 삼성신화는 큰굿과 같은 무속제의 속에서 형성된 무속신화이며, 무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내용도 큰굿과 같은 무속의례와 그 맥이 닿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에는 삼성신화에 나오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를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① 왜 ‘태초에 사람이 없더니~’로 시작하는 것일까?

삼성신화는 거의 모든 자료에서 그 처음 시작이 (고기에 이르기를) ‘태초에 사람이 없더니~’라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박종성 교수는 삼성신화의 이러한 특징을 들어 ‘이 신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태초에 사람과 물상이 전혀 없었다는 배경설정이 초두에 등장하지만 이에 관한 서사가 단절되고 곧이어 세 성씨의 시조가 출현한다고 하는 점에 있다. 창세신화의 기본 설정에서 출발했다가 갑작스럽게 시조 출현 신화로 전환되는 양상은 제주도 고유 창세신화의 특별한 내력이 기록으로 전승되기에 불편한 사정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고¹¹⁾하고 있다.

이 신화의 처음이 창세신화처럼 ‘태초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큰굿과 같은 것의 시작이 태초의 천지혼합 상황으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닮아 있다. 큰굿은 맨 처음에 배포도업침 같은 것이 구송되는데, 이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바로 우리민족의 창세신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맨 처음은 항상 태초의 천지혼합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큰굿과 같은 의식에서 맨 처음이 태초의 천지혼합에서부터 언급되는 것은 굿의 시작을 ‘태초의 아득한 그 때(in illo tempore)’로 되돌림으로서, 제의의 시간을 속(俗)으로부터 성(聖)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삼성신화의 맨 처음이 ‘태초에 사람이 없더니~’로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배포도업침의 형식과 내용을 본뜬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탄생시간은 태초의 아득한 그 때에 일어난 사건이 되고, 주인공들은 훨씬 경이롭고 신비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삼성신화의 맨 처음이 ‘태초에 ~’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신화가 바로 큰굿의 형식이나 내용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이 신화의 형성은 큰굿과 같은 제의와 그 맥락이 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 신화는 고·양·부 삼성의 조상들, 혹은 큰굿을 거행하던 심방에 의해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큰굿의 맥락을 잘 알고 이를 반영했다는 사실을 중시하면 이것은 심방들에 의해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리고 그 시작이 ‘태초에~’로 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신화의 형성시기가 매우 오래전임을 뜻할 수도 있다. 오늘날은 큰굿과 같은 굿을 하면서 그 시작을 태초의 천지혼합부터 시작하는 심방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② 신들의 탄생은 왜 종지용출(從地簞出)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을까?

삼성신화는 고을나·양을나·부을나와 같은 세 신인이 땅에서 솟아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신들의 종지용출 내용이 일본의 구주 남부 및 오키나와, 대만, 동남아 일대에 많이 나타

11) 박종성, 『민속문화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2, 삼성신화 글 참조.

나는 것 때문에 삼성신화는 남방계 신화라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 큰굿 내의 신화를 보면, 신적인 주인공들은 땅에서 직접 솟아나지 않아도 그들이 태어나는 것이 ‘솟아난다’고 말해지고 있다. <초공본풀이>는 무법과 무악기 등을 처음으로 만들고 맨 처음으로 굿을 행한 무조신들의 근본내력담을 설명하고 있는 본풀이이기에 매우 소중한 신화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신화에서 신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솟아나고 있다. 황금산 도단땅에 사는 주자선생은 노가단풍자지맹왕아기씨의 집으로 가 시주를 받으면서 한 손으로 그녀의 상가마를 오른편으로 세 번, 그리고 왼쪽으로 세 번 끌고 가며 이후 자신을 찾을 날이 있을 것이라 하며 떠나간다. 아기씨는 이후 수태를 한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 ‘불도땅’에 가서 쌍둥이 세 아들을 낳는데, 이들은 어머니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왼쪽 겨드랑이, 그리고 가슴에서 솟아나고 있다. 심방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구송한다.

큰아들 솟아나저 흐는디 어머님 알로 나저 흐뉘 아바님이 아니 보아난 그릇질이여. 어머님 느단 즈드랭이 허우틀어 큰아들 솟아나고, 여레드레 근당흐난 셋아들 솟아나저 알로 낳저 아바님이 못내 본 그릇이라 우리 성님도 아니 나와난 질이여. 웬 즈드랭이 허우틀어 솟아나고 스무요(여)드레 족은아들 솟아나저 흐니 알로 낳저, 아바님이 못내본 그릇이라 우리 삼성제 솟아나저 흐니 어머니 가심인덜 아니 답답흐리야 어머님 예순 가심 허우틀어 솟아나고 초사흘 당흐니 모욕상잔 내여놓고 몸 모욕을 시키니 어머님이 내어준 상잔이 뉘옵네다. 서대구덕 출려놓고 초요드레 본맹두도 왕이자랑 여레드레 신맹두도 왕이자랑 수무요드레 살아살축 삼맹두도 왕이자랑 자는 것은 글 소리요 노는 것은 활소리라...12)

여기에서 신들은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겨드랑이와 가슴에서 태어나고 있지만, ‘솟아난다’고 말해지고 있다. 신들의 탄생을 솟아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초공본풀이와 같은 신화를 창조한 집단이 식물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을 보고, 신들의 탄생도 솟아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러한 신화를 창조한 집단은 인간의 생명체계를 식물의 생명체계와 동일시하여 이 둘을 서로 상동성(上同性=homology)을 가진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큰굿집단은 이러한 인식체계를 바탕으로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이승과 저승차지 시험을 벌일 때 꽃피우기 시험을 통해 이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생불할망본풀이>에서는 생불할망과 저승할망이 서로 신직을 다툰 때도 꽃피우기 시험을 벌여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신화적 생명공간으로서의 ‘서천꽃밭’을 창조하여 여기에 핀 생불꽃을 따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를 잉태시키는 것으로 형상화해내기도 했다. 인간의 생명체계와 식물의 생명체계를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해 낸 것은 제주도 큰굿내 신화에 나타나는 하나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신들의 출생을 솟아난다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삼성신화도 원래 처음에는 초공본풀이의 내용을 본받아 신들의 탄생을 ‘솟아난다’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후일 시간이 흐르면서 ‘솟아난다’는 말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땅에서’ 솟아나는 것으로 바뀌었고, 나아가서는 솟아난 구멍인 ‘모홍혈’도 마련된 것이다. 삼성신화에 나타나는 종지용출 화소를 이상과 같이 해석하면, 이것은 남방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기 보다는 제주도 자체 내에서 큰굿 내의 신화적·언어적 특징을 바탕으로 형성

1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162-3쪽 참조.

된 신화소라 할 수 있다.

③ 주인공은 왜 3신으로 되어 있을까?

삼성신화는 주인공이 세 신으로 등장하고, 동시에 땅에서 솟아나고 있다. 어떤 자료에서는 이들이 나중에 서열과 상하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¹³⁾ 대부분의 자료에서 이들은 처음에 동시에 태어나고, 아무 서열이나 상하관계가 없이 대등한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 건국신화는 대부분 주인공으로 1인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들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하면서 3대가 그려지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 신화는 그렇지 않고, 동시에 3인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치 쌍둥이 삼 형제가 함께 태어나는 것과는 같은 모습인 셈이다. 이것은 어쩌면 쌍둥이에 대한 신성인식과 개념을 반영하여 이들 주인공들을 이렇게 동시에 태어나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고대 사회에서는 쌍둥이에 대한 기묘한 신앙이 있었다. 이들은 특히 천후(天候)에 대해서 주술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¹⁴⁾ 그래서 많은 나라의 창세신화에는 주인공으로 에도 쌍둥이가 등장한다. 큰곳과 같은 문화를 창조해낸 집단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배포도업침 중 <천지왕본풀이>에는 두쌍둥이가, 그리고 <초공본풀이>에는 세쌍둥이가 등장한다. 창세신화에 두 쌍둥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 세상을 [해:달], [이승:저승]=[삶:죽음]과 같이 2분법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공본풀이>에 세쌍둥이가 등장하게 된 것은 이 세상을 [천·지·인] 3분체계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삼성신화는 쌍둥이에 대한 신성관념을 반영하여 주인공인 세 신인이 함께 솟아나는 것으로 표현했다. 제주도 큰곳 내의 신화 중 신성한 존재로 세쌍둥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초공본풀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삼성신화는 바로 이러한 신화를 모범으로 삼아 이와 같은 요소를 차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여신들은 왜 오곡종자 및 마소를 가지고 목함에 넣어서 바다를 건너오고 있을까?

삼성신화에서는 세 명의 여신이 오곡종자와 마소를 가지고 목함에 넣어서 바다를 건너 온다는 것이 특징이다. 큰곳내의 신화 중 농경신에 관한 신화인 <세경본풀이>와 풍농신에 관한 신화인 <칠성본풀이>에는 여신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 있다. 세경본풀이는 우리민족의 농경기원신화라 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신화라 할 수 있는데, 하늘에서 오곡종자를 가지고 내려오는 날이 음력 칠월 열나흘이라 하고 있어, 우리의 세시 중 하나인 백중이 바로 우리민족의 농경기원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 신화에서 주인공이 되는 여신 자청비는 하늘에서 오곡종자와 메밀씨를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온 후, 남종을 목축신으로 좌정시켜 제의를 받아먹고 살게 한다. 농경은 우리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여기에는 오곡과 목축이 함께 중요하다. 세경본풀이는 이와 같은 것을 인식하고 만들어진 신화라 할 수 있는데, [세경제]와 같은 것에서 구송되면서 풍농과 목축의 번성을 기원하는데 일조를 했다.

13) <고흥고씨가승>에는 나중에 이들이 각자 돌을 쏘아 용력을 시험하니, 고씨가 상, 량씨가 중, 부씨가 하가 되었고, 그래서 민심이 고씨에게 돌아오므로 고씨는 군장이 되고, 량씨는 신화가 되고, 부씨는 백성이 되어 국호를 탁모(毛牟)라 했다는 기록이 있다.(현용준, 『삼성신화연구』,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185쪽 참조.)

14) 북미 인디언의 많은 부족 및 동남아프리카의 델라고만 근처에 살고 있는 바롱가족도 쌍둥이가 특별히 천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믿고 이들을 신성시했다. (J.G.Frazer, 『황금의 가지』, 김상일(역), 을유문화사, 1975, 107쪽 참조.)

여신이 목함, 또는 석함에 넣어져 바다를 떠다니다 어떤 장소에 표착하는 것은 <생불할망본풀이> 및 <칠성본풀이>에도 나온다. 생불할망본풀이는 아기산육신인 생불신에 관한 본풀이인데, 나중에 저승할망이 되는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어렸을 적에 부친에게 죄를 지어 석함에 넣어져 바다를 떠돌다가 임박사를 만나고 있다. 풍농신, 혹은 부신(富神)에 관한 신화인 칠성본풀이에서는 나중에 안칠성이 되는 아기씨가 수태를 한 것 때문에 부모로부터 쫓겨나 무쇠석함에 넣어져 바다를 떠돌다가 제주의 함덕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큰곳내의 신화에는 여신들이 오곡종자와 마소에 관여하고 있으며, 석함을 타고 바다를 떠돌고 있는 것도 모두 여신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 점은 역시 삼성신화도 같은 것이다. 이런 상황을 중시하면 삼성신화에 나오는 바 세 신인의 배필로서 등장하는 여신들을 이러한 영향을 받아 형상화된 것이 아닌가 한다.

⑤ 세 신인은 왜 거처할 지역을 정함에 있어 활쏘기를 하는 것일까?

삼성신화에서 세 신인은 결혼 후 활쏘기를 통해 자신이 거처할 장소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신이 거처할 장소를 정함에 있어 왜 신들은 하필이면 ‘활쏘기’를 통해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역시 큰곳내의 신화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제주도 큰곳내의 신화 중 활쏘기가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배포도업침 중 <천지왕본풀이>와 무조신에 관한 신화인 <초공본풀이>라 할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하늘에 해와 달이 각기 두 개씩 떠있을 때 지상에서 태어난 대별왕과 소별왕인 쌍둥이 형제가 하늘에 올라 부친인 천지왕으로부터 무쇠화살을 받아 대별왕은 앞에 있는 해는 남기고 뒤에 있는 해를 쏘아 셋별을 만들고, 소별왕은 두 개의 달 중 앞의 것은 남기고 뒤의 것은 쏘아 밤하늘의 수많은 작은별 들을 만든다. 그래서 하늘에는 오늘날과 같이 해와 달이 각각 하나씩만 남게 된 것이다. 이어서 이들은 이승과 저승차지 시험을 벌이는데, 이것은 수수께끼와 꽃피우기 시험을 통해서 한다.

<초공본풀이>에서 활쏘기는 쌍둥이 삼형제가 과거에 합격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쌍둥이 삼형제는 처음에 ‘天地混合’, ‘天地開闢’, ‘三更開門’이라는 글을 써서 과거에 합격한다. 그러나 삼천선비가 “중의 아들 삼형제는 과거를 주고 삼천선비는 과거를 낙방시키냐?”고 하며 억울하다고 신원을 내자 과거에 낙방한다. 그래서 다시 연추문을 쏘아 맞추는 과제가 제시되는데, 삼천선비는 하나도 맞추지 못해 다 떨어지지만 쌍둥이 삼형제는 연추문을 화살로 쏘아 맞출 뿐만 아니라 결국 다 자빠뜨리기까지 한다. 결과로 이들은 하늘이 낸 과거라 하여 삼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고 있다.¹⁵⁾

대별왕과 소별왕의 활쏘기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는 요소로, 초공본풀이에서는 세상의 안과 밖을 가로막고 있는 문을 없애고, 이들을 소통시킬 수 있는 존재인지를 가늠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어, 이 두 신화에 있어 활쏘기는 모두 신들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쓰이는 상징적인 신화소라 할 수 있다. 삼성신화에 있어 세 신인이 행하는 활쏘기 역시 이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신화소로 등장하고 있어 그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삼성신화는 이제 인간세상인 제주도라는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벌이는 능력 시험이기에 그 내용은 제주도 땅을 얼마나 넓게 차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땅을 넓게 차지한다는 것은 바로 땅을 얼마나 잘 구획하고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뜻한다. 활쏘기는 세 신화에서 모두 남성신들이 하는 일로 되어 있으며, 능력을 시험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삼성신화에 나오는 활쏘기 내용은 바로 큰곳

15)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168쪽 참조.

속에 들어 있는 두 신화의 내용을 본받아 꾸며진 것일 수도 있다.

(3) 삼성신화의 구조에 나타나 있는 배포도업침의 흔적

삼성신화는 그 내용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면 ①태초의 상황 및 세 신인의 탄생, ②수렵 생활하기, 의복 마련하기, 혼인하기, 농경의 시작 등과 같은 문화마련 과정, ③땅의 구획 및 마을 설립[국가 설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큰곳의 맨 처음에 불려지고 있는 배포도업침의 구조와 거의 일치한다. 배포도업침은 큰곳의 맨 처음 의식이라 할 수 있는 [초감제]의 맨 앞에서 구송되고 있는 무가인데,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마련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창세신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은

- ① 자연사상의 배포 : 천지혼합-천지개벽-신과 인간을 포함한 여러 생명체의 출현-해와 달의 출현-이승과 저승신 나누기-인간 세상 질서잡기
- ② 인문사상의 도업 : 열다섯 십오성인에 의한 인간세상의 문화창조 과정 설명(불, 집, 서계, 혼인, 악기, 지남차, 성관법, 불도법 등)
- ③ 국가 및 지역 도업 : 앞서와 같은 열다섯 십오성인 도업에 이어 산 배포 물 배포 도업을 이르자 하면서 여러 나라 이름 및 고구려 등을 언급하고 이어서는 제주도의 지리적·역사적 상황이 말해진다. 여기에서는 제주도가 아흔아홉 골밖에 없어 범도 곰도 신하도 왕도 없다는 것, 그리고 당 오백 절 오백이 파괴되는 내용 등이 말해지고 있다.¹⁶⁾

삼성신화는 비록 그 내용이 매우 짧게 되어 있지만 그 구조적 성격은 이와 같이 배포도업침의 구조와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삼성신화를 창조한 집단이 바로 배포도업침과 같은 것의 구조 및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형식과 틀에 맞추어 신화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 신화는 매우 원형적이며, 고풍일 수도 있다.

4) 삼성신화 존재의 의미와 문화사적 위상

삼성신화에 내포된 의미를 이상과 같이 분석해보면, 삼성신화는 그 형성과정에서 큰곳에 나오는 여러 신화를 중시하여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화소를 전범(典範)으로 삼아 창조해낸 의미 있는 신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일부 화소나 내용이 주변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하여 이를 남방계적인 신화라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한다.

삼성신화와 같은 것이 큰곳 중 한 거리인 [조상제] 같은 것에서 구송되기 위해 창조된 것이라 한다면, 이것을 창조해낸 집단은 고·양·부 삼성의 집단이거나 아니면 곳과 같은 제의를 담당했던 사제자인 심방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화의 구조나 형식, 그리고 내용을 보면, 큰곳의 성격이나 신화의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만이 이러한 신화를 창조해냈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전자보다는 후자인 경우에 해당될 것 같다. 창세와 관련된 신들이나 신화내용은 누구든지 항상 신성하게 생각하기 마련이다. <초공본풀이>는 굿법(巫法)을 처음 만들고, 굿을 맨 처음으로 행한 무조신(巫祖神)들에 관한 신화이기에, 심방들로서는 가장 신성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신화이다. 그러기에 삼성신화는 창세신화 내지는 초공본풀이와 같은 신화로부터 다수의 화소를 차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나머지는 기타

16) 이러한 내용에 이어서는 ‘제청도업’을 한다면서 굿을 하는 시간과 장소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날과 국 섬 김이라고도 하는데, 제청도업이라 하면서 굿을 하는 날짜(날)와 장소(국)를 언급하는 것은 신들에게 하강할 시공간을 알려 드리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배포도업침 같은 내용은 신들이 하강할 곳하는 시공간을 신들에게 알려주고자 할 때, 이러한 시공간이 마련되는 기원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제의 속에서 창세신화 같은 것이 왜 생성되었는지 그 기원을 알 수 있다.

의 신화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들 주인공들의 역사적 체험이나 경험을 반영했을 것이다.

삼성신화의 생성배경이나 내용적·형식적 특징을 보면, 이 신화는 매우 고풍의 신화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이 신화가 창세신화적인 틀을 유지하고자 애쓴 흔적이 있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신화는 제주의 수많은 조상본풀이 중 비교적 초기에 만들어진 신화로 볼 수 있으며, 후대에 다른 조상본풀이, 혹은 본향본풀이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삼성신화가 큰곳과 같은 의식과 관련하여 창조되었고 불렸던 것이라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역으로 삼성신화가 형성될 당시 제주에는 이미 큰곳과 같은 무속제의가 거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큰곳과 같은 것은 집단적이고도 대단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당시 이것은 개인차원에서라기 보다는 국가나 마을 같은 단위나 차원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삼성신화의 주인공인 고·양·부 세 성인은 당시 탐라국의 왕이었거나 아니면 일정한 지역의 군장, 또는 수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삼성신화가 실려 있는 자료 중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8권에¹⁷⁾ 나오는 내용을 중시하면 ‘탐라국’이라는 명칭은 고양부 삼인의 15대 후손인 고후, 고척 형제가 신라왕을 조회했을 때 내린 국호로 되어 있다. 문헌상에 탐라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476년, 『삼국사기』에 보면 백제 문주왕 2년에 탐라국이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런데 무가에는 ‘날과 국 섬김’에서 제주도의 설연과정을 언급하면서 ‘영평 팔년을 축 삼월 열사를 날 즈시 생천 고의왕, 축시 생천 양의왕, 인시 생천 부의왕 고향부 삼성이 모은골로 솟아나 도읍하던 국이웨다.’라고 하고 있어¹⁸⁾ 고·양·부 삼인은 그 지위가 왕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시기는 대략 기원 후 1세기 전후로 추정할 수 있다.¹⁹⁾

삼성신화 내에 나타나는 ‘일도, 이도, 삼도’라는 말에 있어, 도는 한자로 ‘都’, ‘徒’라고 쓰고 있지만, 초공본풀이에 ‘불도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중시하면, 고대에 있어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성격을 가진 권역을 지칭하는 언어가 아니었던가 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말이 필요했을 듯한데, 이것이 바로 ‘국’이 아니었을까 한다.²⁰⁾

선학들의 다양한 연구결과 삼성신화는 탐라국의 개국신화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신화에 나타나는바 벽랑국의 세 공주가 목함이나 석함을 타고 바다를 건너 이곳에 왔다는 것은 신화형성 당시에도 탐라가 해양을 통해 대외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17)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중종 25년인 1530년에 편찬 찬술되었다.

18) 현용준, 『제주도무가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44쪽 참조.

19) 2012. 11.14-5 이틀에 걸쳐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바다로 열린 세계, 제주의 해양문화”를 주제로 하여 개최된 국제학술회에서는 신용하 교수가 ‘탐라왕국의 건국과 해양문화 형성’이라는 주제로 기초발제를 했는데, 그는 여기에서 탐라 마을공동체의 先탐라인, 탐라왕국의 건국과 고구려족·양맥족·부여족의 이입, 초기 탐라국과 마을공동체의 통합, 탐라왕국의 건국시기, 벽랑국(靑海)과 농경문화의 유입, 탐라왕국의 행정구역 체제와 초기인구, 탐라의 명칭 기원, 탐라왕국의 해양문화 형성이라는 소주제 아래, 그동안의 고고학 발굴 유적과 고조선 계열 원민족들의 ‘민족대이동’, 탐라왕국의 수도 및 호칭, 탐라국에 대한 고대 중국 및 일본문헌의 기록, 탐라국의 사회경제생활양식 등 모두 20가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탐라국은 “BC 1세기~AD 1세기 형성기부터 AD 12세기까지 약 1200년간 독립왕국으로 존재했으며, 사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자연지리환경에 조응하여 독특한 ‘해양문화’를 형성 발전시켰다”고 역설했다.(한라일보 인터넷자료 참조. 글: 표성준 기자) 이러한 발표는 그간 제주도에 있어 고대국가로서 탐라왕국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거의 불식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탐라왕국의 실체를 어느 정도 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 삼성신화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일도, 이도, 삼도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국명이 있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이것이 어찌면 ‘탐라국’ 혹은 ‘탐라국’이 아니었을까?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8권 제주목 누정 조에는 관덕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주는 원래 옛날의 탁라국인데, 곧 우리 동방의 구한(九韓)의 하나다.”라 하고 있다. 제주는 과거로부터 ‘탁라국’ 또는 ‘탐라국’으로 불리면서 구한의 하나로 인정받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었고 아주 강한 나라였던 것이다.

3. 탐라인의 생활에 미친 무속의 영향

1) 탐라인의 생활상을 보여 주는 자료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8권은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인문지리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 그리고 풍속 등을 전하고 있어 제주를 알고자 하는데 긴요한 자료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탐라국의 생활상을 전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이것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칠성도

제주목의 고적조에는 ‘칠성도(七星圖)’를 소개하면서 ‘주 성 안에 있다. 돌로 쌓았던 옛터가 있다. 삼성(三姓)이 처음에 나와서 삼도를 나누어 차지하고 북두성(北斗星) 모양으로 대를 쌓아 웅거하여 칠성도라 이름하였다’²¹⁾ 되어 있다. 이 내용을 통해서는 탐라국의 초기에도 당시 이 사회에는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2) 양자맺기 의식

제주목(濟州牧) 건치연혁에는 ‘여기는 본래 탐라국인데, 혹은 탁라(毛羅)라고도 했다. 전라도 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폭원 400여 리다. 처음에 양(良)을나고을나부을나라는 세 사람이 있어 그 땅에 나누어 살고 그 사는 곳을 도(都)라고 이름하였다. 신라 때에 고을나의 후손 고후(高厚)가 그 아우 두 사람과 함께 바다를 건너 신라에 조회를 한 바 왕이 매우 기뻐하여 후에게 칭호를 성주(星主)라 하고, 그 둘째 아우는 왕자(王子)라 하였으며, 끝 아우는 도내(都內)라 하고 국호를 탐라로 내렸다.’라는 글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는 <고려사> 고기에 이르기를 하면서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은 삼성신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리고는 이어서 ‘15대손 고후(高厚), 고청(高淸) 형제 세 사람이 배를 만들어 타고 바다를 건너 탐진에 닿았으니 대개 신라의 융성한 시대였다.’라는 글이 있으며 다음 글이 이어진다.²²⁾

이 때에 객성(客星)이 남방에 보였는데, 태사가 이르기를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조회할 징조라.” 하였다. 후의 무리가 이르매, 왕이 가상이 여기어 후에게 성주(星主)란 칭호를 주었으니 객성상(客星像)이 동하였기 때문이다. 왕은 청(淸)을 자기의 가량이 아래로 나아가게 하고 사랑하기를 자기 자식 같이 하여 왕자(王子)라고 일컬고, 그 막내를 도내라고 일컬었다. 고을 이름을 탐라라 하였으니, 처음에 탐진에 닿아 신라에 조회하였기 때문이다. 각각 보개와 옷을 주어 보냈다. 이때로부터 자손이 번성하여 신라를 공경히 섬기매 드디어 고(高)로 성주를 삼고 양으로 왕자를 삼고 부로 도상을 삼았다. 뒤에 양(良)을 고쳐 양(梁)으로 하였다.”²³⁾

21) (재)민족문화추진회역,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V, 113쪽 참조.

22) (재)민족문화추진회역,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V 고전국역총서44, 92-3쪽 참조.

23) (재)민족문화추진회역,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V 고전국역총서44, 92-93쪽 참조. 이 중 ‘후의 무리가 이르매’ 부터의 원문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及厚等至 王嘉之 稱厚曰星主 以其動星象也 令淸出膝下 愛如己子

이상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이러한 의식을 치른 후 신라왕이 고청을 아들로 삼아 왕자라 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바로 부자관계를 맺는 의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탐라인의 삶에 미친 무속의 영향

칠성도와 관련된 내용은 탐라국의 초기에도 북두칠성을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주도 큰곳에서는 [칠성제]에서 ‘칠성신’에 대한 제의가 행해졌는데, 칠성신은 표면적으로는 뱀이고, 신적 성격은 풍농신, 혹은 부신(富神)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의에서 구송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칠성본풀이의 내용을 보면,²⁴⁾ 주인공이 되는 칠성신은 그 부모가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에게 칠성제를 지낸 덕분에 태어나고 명과 복도 함께 받는다. 결국 뱀이 칠성신으로 불리게 된 것은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신 덕분에 태어난 것과 관련하여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점을 중시하면, 이것은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의 신성성을 빌어 뱀을 더욱 신성하게 만들고자 했던 신화적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삼성신화의 주인공들인 세 신인이 칠성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탐라국의 초기에도 북두칠성을 신성시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큰곳 속에 [칠성제]와 같은 것이 있었고, 칠성본풀이와 같은 신화가 구송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신화 내용을 참고하면, 이들이 이처럼 칠성대를 만든 것은 명과 복, 다산 등을 기원하기 위함이었다. 칠성도 내용은 제주도에서 존재했던 고대 신앙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큰곳과 같은 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화인 것이다.

신라왕과 고청은 함께 혈연을 나눈 부자간이 아니므로 신라왕은 고청을 왕자(王子)라 부를 수 없다. 그럼에도 줄친 부분과 같은 의식을 치른 후 신라왕은 고청을 왕자로 부르고 있다. 그러기에 줄친 부분과 같은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친자맺기, 혹은 양자맺기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자식이 될 존재가 부모가 될 존재의 가량이 아래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의식은 큰곳에서 구송되고 있는 본풀이에도 등장하고 있다. 바로 배포도업침 중의 <천지왕본풀이> 및 무조신에 관한 신화인 <초공본풀이>가 그것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하늘에 오른 후 아버지인 천지왕의 부인이 되는 신의 굴중이에 들어갔다 나온다. 여기에서 굴중이란 치마바지와 같은 것으로, 이는 곧 가량이 있는 바지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곧 의사모친(擬似母親)이 될 천지왕부인의 가량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지왕본풀이는 아들이 될 존재가 어머니가 될 존재의 굴중이 가달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고, 고청과 신라왕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들이 될 존재가 부친이 될 존재의 가량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라는

稱曰王子 又號其季 曰都內 邑號曰耽羅 以初來泊耽津而朝新羅也 各賜寶蓋衣帶而遣之 自此子孫蕃盛 敬事新羅 遂以高爲星主 良爲王子 夫爲徒上 後良爲梁

24) 이 신화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나라 장실용과 송나라 송씨부인은 나이 먹어도 아기가 없어 걱정을 하다가 후원에 칠성단을 무어놓고 칠성불공을 드리면 부자가 되고, 자손도 번성할 것이라는 대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제물을 차려 놓고 칠성제를 지낼 때 하늘의 일곱성군이 내려와 응감하고 각각 명과 복, 그리고 생불을 주고 간다. 덕분에 부부는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은 나중에 중에 의해 수태를 하게 되어 무쇠석함에 넣어져 바다에 버려진다. 함이 제주도 함덕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이 함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어미뱀과 새끼뱀이 합하여 여덟 마리가 있어 징그럽다 하고 버리니 병이 생겼는데, 이를 가져다 모신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다. 칠성신들은 나중에 집의 여러 곳에 나누어 좌정하면서 그 집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신들이 된다.

점에서 차이가 나지만, 그 의미는 모두 자식이 될 존재가 부모가 될 존재의 가량이 아래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다.

<초공본풀이>에서는 쌍둥이 삼형제가 너사메아들 너도령 삼형제와 형제관계를 맺을 때 쌍둥이 삼형제의 어머니, 즉 노가단풍자지맹왕아기씨의 단속곳 한쪽 가량으로 함께 들어갔다 나온다. 이들은 이렇게 형제관계를 맺은 후 함께 북, 장고, 울징과 같은 무악기를 만들어 삼천전제석궁에 갇힌 어머니를 살려내기 위해 그 곳에 가서 무악기를 울려대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속곳의 가량으로 함께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이들이 같은 어머니에게서 출산되었음을 시늉하는 것으로, 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형제임을 상징하고 있다.

고청, 대별왕 및 소별왕, 그리고 쌍둥이 삼형제 및 너사메아들 너도령 삼형제가 행하는 이와 같은 의식 방법은 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들이 상징하는 것은 모두 그들이 의사부모(擬似父母)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머니의 다리 밑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을 중시하여 만들어진 의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의식은 유사한 유사를 낳는다는 동중주술의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의식이 오늘날 제주에서도 행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천지왕본풀이>나 <초공본풀이>와 같은 신화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의식내용이 오늘날 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들 신화가 창조될 때부터 있었던 내용이라고 본다면, 고청이 했었던 앞서와 같은 의식은 바로 큰굿 속의 신화내용에 의거하여, 혹은 신화로부터 유추하여 만들어진 의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점을 상기하면, 이것은 고청과 같은 존재가 살고 있었을 때 이미 탐라국에는 큰굿과 같은 제의가 거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신화를 포함하여 큰굿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은 당시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제주의 중심가치는 무엇인가?

제주의 큰굿은 아주 오래된 고행의 문화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불리는 여러 종류의 신화들은 그 내용이 육지 쪽의 무가 속에, 전설 속에, 민담 속에, 아니면 고소설로 변해서 남아 있기에²⁵⁾ 이러한 큰굿은 적어도 제주도에서 자연발생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탐라국 때인지 아니면 그 이전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대의 언제인가 제주에 들어와 지금까지 제주도 문화를 형성해내고,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하여 육지 쪽에서는 다 변해버리고 사라져 버린 우리민족의 고대적·종교적 제의가 어떤 모습이었던 것인지를 알게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제주도에 이러한 곳이 남아 전승되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러한 큰굿이 우리민족사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형성되었던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현재는 적어도 그 역사적 시기가 최소한 사마천의 『사기』가 쓰여지기 이전이라는 것까지만 밝혔다.²⁶⁾ 제주도에 이처럼 고행의 문화가 남아 있게 된 것은 일단 제주도가 섬이며, 세습무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천년 가까이 탐라

25) 이 중 한 가지 예를 들면, 제주도 큰굿 중의 하나인 <이공본풀이>는 육지쪽에서는 무가 속에 아스라이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지립사연기설화, 석보상절 중의 안락국태자경, 고소설 안락국전 등은 그 내용이 이공본풀이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상호분명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립사연기설화는 석가모니의 본생담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본생담인 자타가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중요한 자료다.

26) 이수자, 「제주도 무속의 창세신화로 본 민족문화의 정체성」,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2008, 331-404쪽 참조.

시대로부터 이곳에 살고 있는 제주인들이 이 섬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신들을 가슴에 품어 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향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 뿌리가 어떻든 현재 큰곶과 여기에 있는 많은 신화들은 제주도에 남아 존재하고 있다. 그러기에 이들은 제주 고향이며, 제주신화인 동시에 탐라신화라 할 수 있다.

제주에는 참으로 많은 보물이 있다. 아름다운 경관, 물, 바람, 바위, 바다 등과 같은 자원도 보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보물은 제주를 지켜온, 그리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이들이 만들고 유지·전승·보존해왔던 역사 및 전통문화라 할 수 있다. 제주의 전통문화는 육지 쪽과 달라도 정말 너무 다르다. 언어가 다르고, 노래가 다르며, 특히 지명도 다르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제주의 가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제주의 큰 보물이며 보다 중요한 중심가치로 볼 수 있는 것은 앞서와 같은 이유에서 무엇보다도 제주의 큰곶과 여기에서 구송되고 있는 본풀이, 즉 신화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삼성신화의 형성배경을 살펴본 것은 적어도 이러한 큰곶이 탐라시대에도 존재했을 것이라는 점을 논증하고, 삼성신화도 이러한 시기에 큰곶과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문화임을 밝혀보기 위해서였다. 탐라인의 생활의 한 단면에 비치고 있는 무속신화의 흔적을 살펴 본 것도 이와 같은 목적에 있었다. 결과적으로 큰곶은 탐라시대 이전에도 존재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탐라시대에는 존재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큰곶은 이후 오랜 기간 전승되어 오면서 제주도의 수많은 본향본풀이 및 조상본풀이를 창조해내는 그릇이 되어왔다. 이들은 모두 오랜 기간 적층되어 오면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어, 제주의 역사 및 제주인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다. 큰곶 속의 내용들은 또한 제주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내용을 형성·지배하고 규정짓기도 했다. 탐라국의 고성이 했다는 친자맺기 의식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신화란 인간사회의 의례의 기원을 마련하는 본질이 있는 만큼, 실제로 이처럼 신화 내용이 제주인들의 삶의 내용을 형성하고 규정했던 것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제주도의 큰곶은 이처럼 제주문화를 형성해 온 모태라 할 수 있어, 제주문화의 뿌리라 할 수 있다. 까닭에 제주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제주의 무속, 그 중에서도 특히 큰곶은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이며, 동시에 제주의 문화자산이다. 제주도에 이와 같은 고향의 문화가 남아 있게 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할 수 있어, 이런 면에서 이와 같은 문화를 보존, 전승해온 제주도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전승·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신화들 속에는 이것을 창조해낸 집단의 세계관 및 가치가 들어 있으며, 오랜 기간 상상력을 통해 얻어진 수많은 문화아이콘과 브랜드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지식정보화시대를 넘어 문화산업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세계는 현재 문화산업 전쟁을 치르고 있다. 1993년 미국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화석으로만 남아있는 공룡시대를 <쥐라기공원(Jurassic Park)>이라는 영화로 부활시켜 9억 달러의 흥행수입을 거두었다.²⁷⁾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영국의 조앤 롤링은 1997년 첫 번째 시리즈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을 출판한 이래 7년 후에는 세계 부자 순위 552위에 오르고(2004년 포브스 발표), 오늘날은 서적 판매인세와 영화 판권 수입을 비롯해 미국 플로리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해리포터 테마파크, 해리포터 전자책 판매사이트 ‘포터모어’ 등 다양한 수입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금은 영국 여

27) 이것은 당시 한국의 현대자동차 1년 수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다.

왕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드라마 <대장금>을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함은 물론 세계에 한국의 이미지를 드높임으로서, 경제적·감성적으로 일부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다. 그리고 현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기관을 만들어 우리 문화산업의 진작과 부흥을 기대하며 지원하고 있다. 문화산업에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소설, 영화,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음반, 연극, 뮤지컬, 테마파크, 축제 등이 있을 것이다.

문화산업시대에서는 콘텐츠(contents)가 필요하다. 이것은 역사나 이야기, 삶에 대한 기억과 흔적 등 시간 속에서 발굴해내는 자원으로 채워질 수 있다.²⁸⁾ 이러한 자원은 공해를 남기지 않고도 많다. 로프 엔센은 미래사회를 예측하면서 “가장 훌륭한 이야기를 가진 전사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리고 세계시장도”라고 했다. 따라서 이제는 바야흐로 이야기가 자원이 되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으며 이야기를 찾느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다. 탐라신화라 할 수 있는 큰굿 속의 신화들, 예를 들면 배포도업침, 생불할망본풀이와 마누라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강남차자본풀이를 포함한 저승이야기, 사만이본풀이, 세경본풀이, 칠성본풀이, 문전본풀이 등이 있고, 꿩내깃당본풀이를 비롯한 수많은 분향본풀이와 조상본풀이 등이 있다. 또한 생명꽃과 서천꽃밭도 있다. 원천강본풀이, 삼두구미본, 설문대할망이야기, 이어도 이야기, 기타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여기저기 전해지고 있는 수많은 전설들, 그 외 술한 삶의 이야기들, 바닷속 이야기 … 이들은 모두 중요한 콘텐츠들이 될 수 있다.

그간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승해왔던 수많은 심방들과 설화 구연자들, 그리고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을 수집하고자 노력해 왔던 장주근, 현용준, 진성기 선생님 등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소장학자들의 노력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하여 창조적인 문화산업으로 변용시킬 수 있는 수많은 스토리텔러와 능력 있는 문화기획자 및 문화산업가가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원형을 그대로 살려도 되겠지만 여기에 상상의 날개를 달아 창조적으로 비틀어도 된다. 결론은 뛰어난 창조적인 문화산업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주만의 고부가가치를 창조해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인 고부가가치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정신적·감성적인 고부가가치도 필요하다. 문화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잘 만들어진 콘텐츠를 통해 고객들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제주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산업의 결과물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여 경제적 이익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여 제주를 살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곳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준비와 설계야 말로 제주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에 있어 제주가 중심가치로 삼아야 할 주제가 아닌가 한다.(끝)

[참고문헌 생략] : 각주 참조

28) 이하의 일부 내용은 정명철·김미혜·이은미 공저, “지역설화를 활용한 공간스토리텔링 연구”, 남도민속학의 글을 인용했음. 덴마크 미래학자 로프 엔센에 의하면 인류는 수렵채취사회를 시작으로 하여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거쳐 ‘드림소사이어티’로 진행한다고 전망했으며, 미래사회의 가장 중요한 원재료는 ‘이야기, 신화, 전설’이라고 강조하였다(로프 엔센, 서정환 역, 『드림소사이어티: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 한국능률협회출판, 2005 참조).